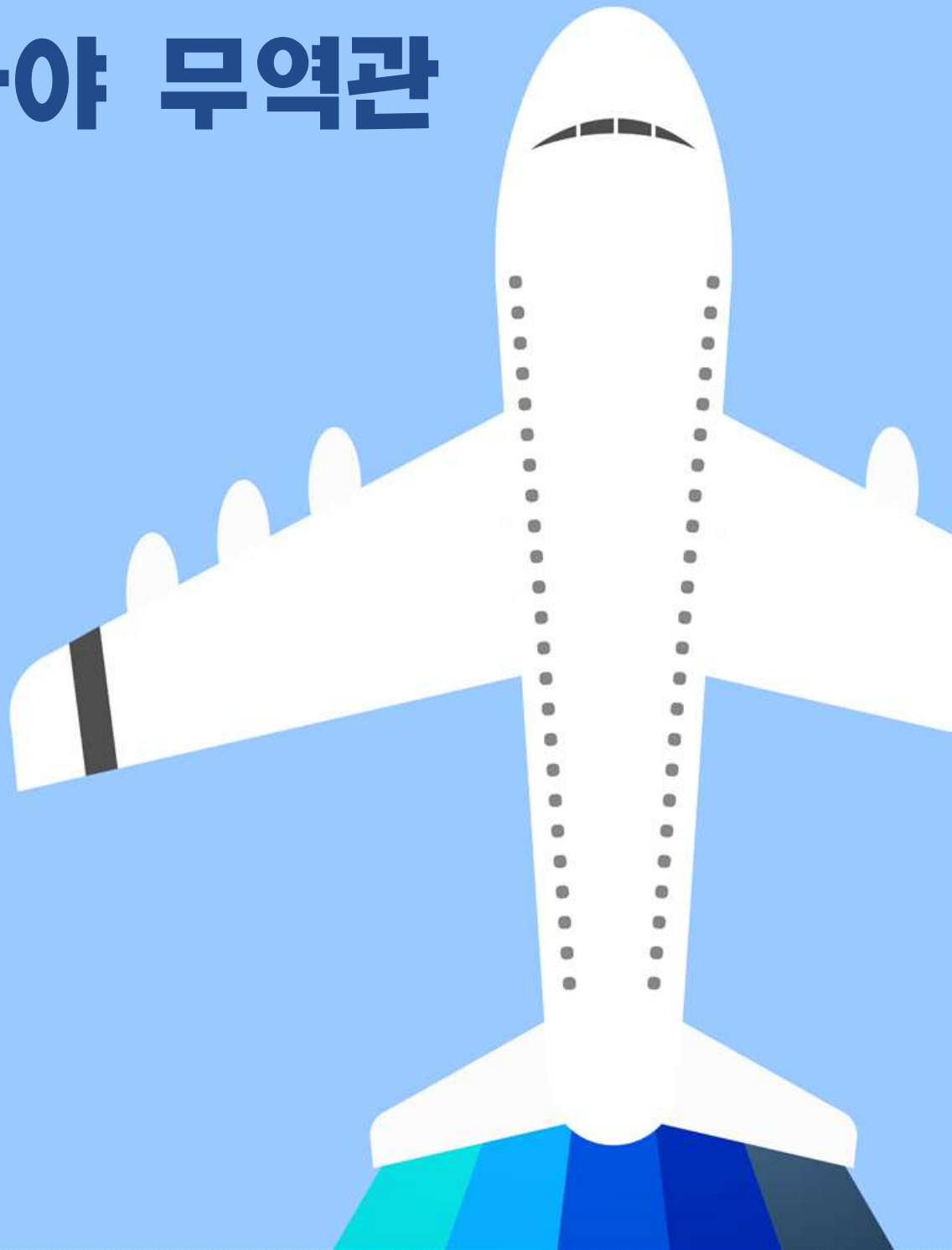


2022 해외출장 가이드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무역관

Surabaya



목 차

I. 인도네시아 개황	1
II. 인도네시아 역사	2
III.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	5
IV. 체류 시 유의사항	18
V.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정보	21
VI. 주요 기관 및 긴급 연락처	24
VII. 주요 쇼핑몰 정보	25
VIII. 수라바야 볼거리	26
IX. 간단한 인도네시아 모음집	27

I. 인도네시아 개황

국 명	인도네시아 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면 적	190만 km ² (세계 15위, 한반도의 9배), 약 18,000개 섬으로 구성 - 주요 5개 섬 : 자바, 수마트라, 칼리만탄, 술라웨시, 파푸아
기 후	열대성 몬순기후, 고온 다습 - 연평균기온 : 25~28°C(자카르타 : 32~33°C), 습도 : 73~87% - 우기(11~2월), 건기(3~10월)
주요도시	자카르타 (수도, 1,061만 명), 수라바야 (290만 명), 발리(432만 명)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2022년 5월 조회)
인 구	2억 7,260만 명 (세계 4위) *인도네시아 통계청('22.2 발표)
언 어	인도네시아어 (Bahasa Indonesia)
종 족	자바족(40.1%), 순다족(15.5%), 아체족, 발리족 등 1,340여 부족
종 교	이슬람교(87%), 기독교(7%), 가톨릭(3%), 힌두교(2%), 불교(1%)
건국일	1945년 8월 17일
국가원수	대통령 (조코 위도도) - 제8대 대통령, 2019년 연임 성공으로 2014~2024년 임기
입법부	국민협의회(MPR) 총의석수 711명 = 국회(DPR) 575명 + 지역대표회의(DPD) 136명
정 당 (여 당)	투쟁민주당(PDI-P, 여당, 128석), 골카르당(Golkar, 85석), 그린드라당(Gerindra, 78석), 나스뎜당(Nasdem, 59석), 국민계몽당(PKB, 58석), 통일개발당(PPP, 19석)
정 당 (야 당)	민주당(Demokrat, 54석), 복지정의당(PKS, 50석), 국민수권당(PAN, 44석) 등
화폐단위	루피아 (Rupiah) ※표기방식 : IDR(공식), Rp(통용)
환율	USD 1 = IDR 14,311.61 (2021 인도네시아 평균 환율 중앙은행)

II. 인도네시아 역사(略史)

1. 인도네시아 역사(고대~근대 식민지 시대)

□ 고대 원시 인류의 출현지

- 인도네시아 자바 섬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원시 인류의 화석과 자바원인의 두개골(50만 년 전 것으로 추정)과 화석 등 유물 등 발견

□ 고대 왕국 시대

- 불교, 힌두교 왕국의 흥망(5세기~13세기)
 - 5세기부터 13세기까지 서부 자바에 다르마왕사 왕국, 수마트라섬에는 스리위자야 불교 왕국이 번성하는 등 인도를 능가할 정도로 불교문화가 꽃을 피움
 - 세계 최대 불교 유적지인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도 8세기경 건립
- 이슬람 전파와 세력 확대(14세기~16세기)
 - 14세기 후반부터 이슬람 상인들이 무역을 위해 므라카, 팔렘방 등의 항구를 왕래하면서 이슬람교를 전파함
 - 16세기부터 이슬람 왕국인 데막 왕국이 이슬람교를 본격적으로 보급

□ 식민지 시대

-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1596~1942)
 - 16세기 무렵,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 서유럽 국가들의 인도네시아의 향료 무역의 독점과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전쟁 끝에 네덜란드가 승리
 - 네덜란드는 1602년 자카르타 항을 동인도회사의 중심기지로 삼아 향료 등 특산품의 독점 무역을 하다가 점차 세력을 확대하여 현재의 메단, 마나도, 암본 등의 주요 항구까지 점령, 이후 점차 반둥 내륙까지 지배하였고, 1910년에는 발리까지 점령
- 일본군 점령 시대(1942~1945)
 - 일본은 인도네시아 내의 일부 독립 세력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를 침투해 점진적으로 강제 점령, 약 3년여 동안 식민 통치

2. 인도네시아 역사(독립 이후 근현대)

□ 인도네시아의 독립,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1945~1966)

- 1945년 8월 17일, 인도네시아 공화국 독립 선언 및 헌법 채택
 - 수카르노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 판차실라(Pancasila)라는 다섯 가지 건국이념에 따라 강력한 민족주의를 표방

<5개 건국이념>

중앙에 있는 별	신앙의 존엄성
오른쪽 아래의 체인	인간의 존엄성
오른쪽 위의 나무	통일 인도네시아
왼쪽 위의 물소	민주주의 대의정치
왼쪽 아래의 벼 이삭	사회정의 구현



- 세계 무대에서 인도네시아 부각, 국내 경제발전에는 미흡
 - '55년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개최, '62년 네덜란드로부터 이리안자야(파푸아) 탈환 등 대외정책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국내 경제의 건설은 미흡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고 증가

※ 수카르노 체제 당시 경제 분야 상황

- 사회주의 노선에 따른 주요 산업의 국유화 조치
- 민족자본 부재 및 경제의 빈사 상태
- 정치적 불안정에 따른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장기 경기 침체

□ 수하르토~유도요노 대통령(1966~2014)

- 1966년 3월,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 수하르토 장군에게 실권 이양, 수하르토 장군 1968년 대통령으로 취임
 - 1965년 공산 반란군이 6명의 군 장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발하여, 수하르토 장군이 공산당 세력을 진압, 반공적인 쿠데타에 성공
 - 수하르토는 국내 경제 안정 및 발전에 주력하였으며, 공산당 세력과 화교 세력을 철저히 배제

- 강력한 군대를 배경으로 30여 년 동안 장기 집권, 1997년 IMF 경제위기와 함께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국민 저항으로 사임

※ 수하르토 체제 당시 경제 분야 상황

- 세계자본주의로의 편입에 따른 시장경제 도입, 경제개발정책 추진
- 서방세계의 차관원조, 외국인 투자유치, 투자규제 완화
- 1970~1980년대 고유가에 따른 높은 경제 성장
- 지역, 민족 간의 경제 불균형 심화, 정경유착 및 부정부패 심화
- 1997~1998년 경제위기 및 화인(화교) 대학살 발생

- 유도요노 대통령 2004년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 2009년 재선에 성공

□ 조코 위도도 대통령(2014~2024)

- 2014~2019년 조코 위도도(조코위) 1기 정부
 - 인도네시아 최초의 직선제 정권 교체를 통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 취임
 - 취임 후 부정부패 척결, 13개의 경제 패키지를 통한 5개년 인프라 개발 계획(2014~2019) 등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관광산업, 전자상거래 산업 육성 주력
 -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
- 2019~2024년 조코위 2기 정부
 - 코로나19로 인해 연 5%의 고성장을 구가하던 인도네시아 경제가 2020년 -2.07%로 20여 년 만에 공식적인 경기 침체 기록
 - 하지만 2021년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와 경제 회복 등으로 경제 성장률 3.69%를 기록하며 V자 반등에 성공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보급 확대와 방역 인프라 구축 주력
 - 순연된 인프라 재개, 디지털 경제 활성화, 인재 육성 등 기존 정책 지속 추진 중
 - 2019년 8월 26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동부 깔리만탄 지역으로 이전할 것임을 공식 선언(코로나19로 공사 순연)
 - 2022년 G20 발리 정상회담 의장국으로, 국격을 높이고 국제사회 주요 이슈를 다룰 것으로 기대

Ⅲ. 인도네시아 경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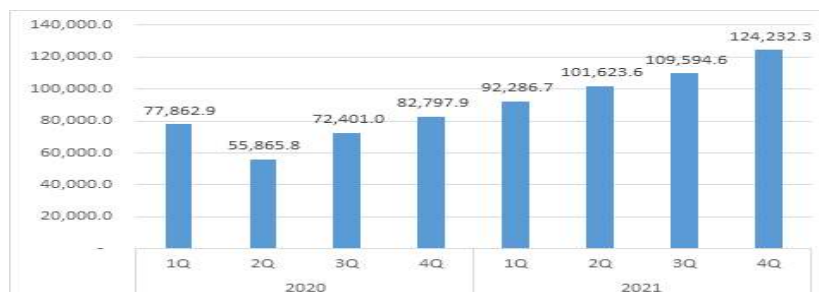
1. 인도네시아 경제 개황

□ 경제 성장률

- 인도네시아 경제는 2008~2009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극복, 중산층 증가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와 활발한 해외 투자 유입,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붐에 힘입어 2010~2019년 5~6%대의 고성장 구가
-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침체로 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2.07%)을 기록
 -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식 발표된 3월을 기점으로 정부의 강력한 락다운 정책과 전 세계 국경 봉쇄에 따라 제조업·인프라·관광 등 주요 산업 큰 타격
 - * 교통·물류업(-15.0%), 숙박·요식업(-10.2%), 도·소매업(-12.9%), 제조업(-2.9%)
 - 반면, 비대면 거래 수요 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 분야와 코로나19와 관련된 의료분야는 경기 침체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21년은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회복 정책(백신 보급, 인프라 개발 추진, 각종 세제 혜택 등)과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 따라 3.69%로 V자 반등에 성공
 - 주요 수출 상품인 석탄과 팜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교역액은 역대 최고치인 4,277억4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0% 증가

<분기별 무역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외국인 투자는 전년대비 7.9% 증가한 311억 달러로, 사회활동 제한 조치가 시행된 3분기를 제외하고 지속 증가

<분기별 외국인 투자 유치액>

단위: 백만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2022년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 기조로 주요 기관에서 5% 이상 경제 성장 전망
 - 주요 수출 상품인 석탄과 팜유 등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무역흑자 확대 추세
 -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기 회복 방해 요소 상존
 - 환율은 코로나19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미 연준 이사회 금리 인상으로 최근 루피아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 압력 속 기준 금리 인상 여부 주목
 - * '21.2~'22.5 기간 기준 금리 3.5%로 동결

<주요 기관별 인도네시아 2022년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기관명	인니 중앙은행 ('22.4)	IMF ('22.4)	World Bank ('22.3)	ADB ('22.4)	EIU ('22.4)	OECD ('21.12)
전망치	4.5~5.3	5.4	5.1	5.0	5.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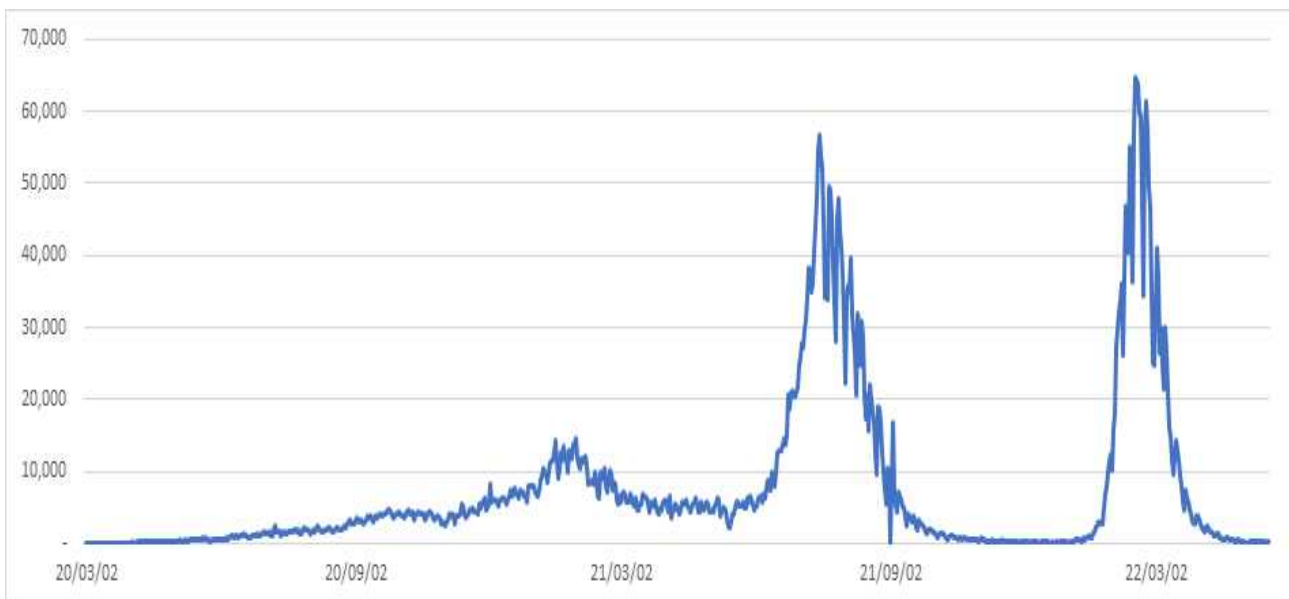
자료: 기관별 발표 자료

□ 코로나19 현황

- '22.5.30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605만 명(세계 19위) 사망자 15만(세계 9위)
 - '21.7월 델타, '22.2월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 이후 신규 확진자 300명대
 - * 일일 확진자: 10,185(1.31) → 25,054(2.28) → 3,332(3.31) → 329(4.30) → 279(5.28)
 - * 일일 사망자: 17(1.31) → 262(2.28) → 89(3.31) → 17(4.30) → 8(5.28)
 - '22.5.29 기준 백신 접종률 : 1차(96.1%), 2차(80.3%), 3차(21.8%)

<인도네시아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추이>

단위: 명



자료: 인도네시아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https://covid19.go.id/>)

- 코로나19 상황 호전에 따른 엔데믹 전환을 앞두고 일상으로의 전환 시행
 - 올해 코로나19 경기 부양액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125억 달러) 신규 배정
 - 코로나19로 2년 동안 금지되었던 ‘르바란 귀성(Mudik)’ 허용(약 8,600만 명 이동)
 - '22.5.18부 방역 조치 완화(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국내외 이동 시 PCR 검사 완화)
 - 자카르타 및 수도권의 ‘사회활동 제한 조치(PKM)’는 1단계로 하향 조정

2. 2022년 시장 여건

지표		출처	단위	2019	2020	2021	2022 (측정기간)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인니 통계청	%	5.02	△2.07	3.69	5.01 (’22.1Q)
	1인당 명목 GDP	IMF	US \$	4,175	3,912	4,350	—
	명목 GDP	IMF	US \$ 십억	1,120	1,060	1,187	—
	물가상승률	인니 통계청	%	2.7	1.68	1.87	2.64 (’22.1Q)
	종합주가지수 (JCI)	인니 증권거래소	연말	6,307	5,959	6,581	6,989 (’22.5.30)
	실업률	인니 통계청	%	5.2	7.1	6.5	5.8 (’22.2)
대외 경제	수출실적(누계)	인니 통계청	US \$억	1,677	1,632	2,315	661 (’22.1Q)
	수입실적(누계)	인니 통계청	US \$억	1,713	1,416	1,962	568 (’22.1Q)
	무역수지(누계)	인니 통계청	US \$억	△36	216	353	93
	외국인투자금액 (누계)	인니 투자부	US \$억	283	287	311	103 (’22.1Q)
	경상수지	인니 중앙은행	US \$억	△303	△44	34	2 (’22.1Q)
	총외채	인니 중앙은행	US \$억	4,045	4,175	4,151	4,115 (’21.2Q)
	외환보유고	인니 중앙은행	US \$억	1,292	1,359	1,449	1,357 (’21.4)
	기준금리	인니 중앙은행	%	5.0	3.75	3.5	3.5 (’22.5)
	환율(연말기준)	세계은행	Rp/US\$	14,148	14,582	14,308	—

□ 대외 경제 동향

- (대외 경제 전반) 글로벌 경기 회복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 상회
 - 4월 수출액은 최고치인 273억 달러(47.8% 증가/전년동기비), 수입액도 198억 달러(22.0% 증가/전년동기비)로 인도네시아 교역 회복세 뒷받침
 - 4월 무역흑자 역시 76억 달러로 최대치 기록
- (원자재)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원자재 가격 급등
 -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직후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은 전년동기 대비 4배, 팜유는 2배, 니켈 3배가량 가격 급등
- (통상)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협정을 통한 교역 확대 지속 추진
 - 한-인도네시아 CEPA('22년 하반기 비준 및 발효 예정), RCEP('22년 하반기 비준 및 발효 예정),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22.5.24 참여) 포함 인도, EU, 터키 등과도 무역협정 추진 중
- (환율) 코로나19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였으나 미 연준 금리 인상으로 최근 루피아 약세
 - 5월 루피아-달러는 14,800을 터치하는 등 약세를 보였으나 주요 수출품목인 팜유의 수출제한조치 완화로 반등에 성공하며 14,600선 회복
 - * 14,351(4.20) → 14,480(4.28) → 14,546(5.10) → 14,805(5.20) → 14,651(5.30)

□ 내수 경제 동향

- (내수 경제 전반) 엔데믹 전환을 앞두고 본격적인 내수 소비 활성화 기대
- (정책) 내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코로나19 극복 및 경기 부양을 위한 경제회복 예산(약 125억 달러) 신규 배정
 - * 기존 5개 부문(의료/사회보호/중소영세기업/취약산업/세금인센티브)에서 3개 부문(의료/사회보호/경제회복)으로 통폐합
 - 국가 에너지 보조금 추가 배정을 통해 안정적인 연료/전기 가격 유지
 - G20 정상회담 개최를 맞아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인프라/신수도/세제혜택 등) 추진 전망

- (소비/생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는 내수 경제
 - '22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은 5.01%로 전년 동기 마이너스 성장(-0.7%) 대비 큰 폭 상승
 - 수출입 낙수효과에 따른 생산량 및 구매량 증가로 8개월 연속 경기 확장 국면 지속
 - * 구매관리자지수 추이: 43.7(21.8월) → 52.2(9월) → 57.2(10월) → 53.9(11월) → 53.5(12월) → 53.7(22.1월) → 51.2(2월) → 51.3(3월) → 51.9(4월)
 -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 활성화로 물가는 지속 상승 추세에 있어 16개월째 동결된 기준금리(3.5%) 인상 압박
 - * 소매판매지수 추이: 209.6(22.1월) → 200.0(2월) → 205.3(3월) → 219.3(4월)

- (물가) 4월 물가상승률은 3.47%로 33개월 만 최고치 기록
 - 라마단 기간 식품 및 교통 수요 증가 등 수요 회복 요인 외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해 유발된 공급 측면도 작용
 - '22년 소매판매는 지속 상승 추세에 있으며 4월 219.3p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p 증가
 - * (1월) 209.6 → (2월) 200.0 → (3월) 205.3 → (4월) 2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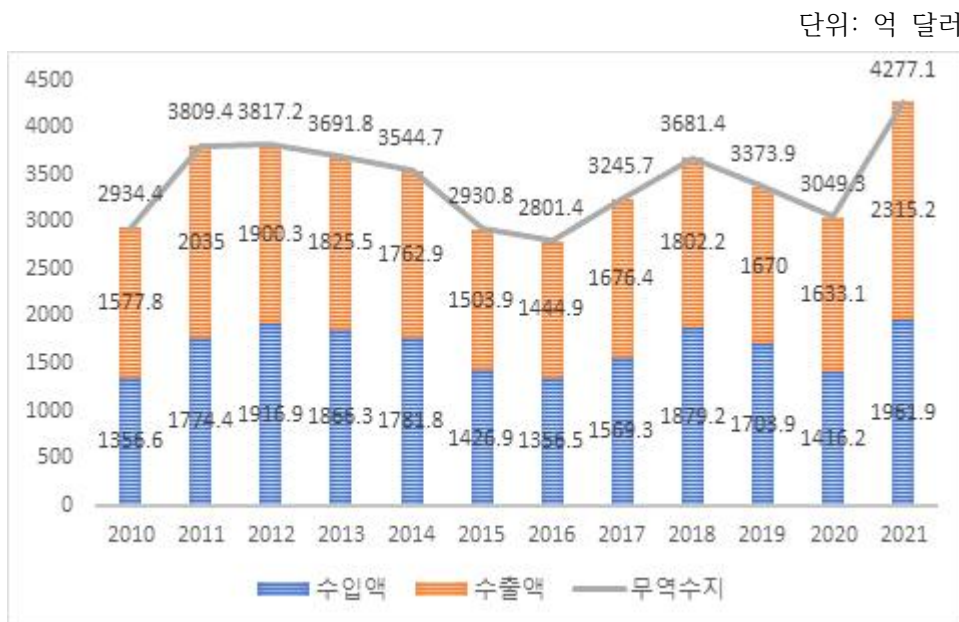
- (기준금리) 인플레이션 압력 속 기준금리 인상 여부 주목
 - 역대 최저인 3.5% 기준금리(7일물 역레포) 16개월째 동결 중('21.2 ~ '22.5)
 - 중앙은행은 최근 증가한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통제 가능하여 당분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없음으로 발표하였으나('22.5) 인플레이션 상승 지속 시 기준금리 인상 가능

- (FDI) 내수 회복 속 FDI 증가세 유지
 - 투자유치를 위한 옴니버스법 시행령 공포('21.2), 투자조정청 투자부 승격('21.4),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등에 따라 '22년 1분기 투자 103억 달러 기록(32.0% 증가/전년 동기비)
 - 온라인 플랫폼 OSS(Online Single Subission) 시스템을 통해 투자 관련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8.9 시스템 점검 후 공식 운영 재개)

□ 대외 교역 현황

-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대외 교역을 살펴보면, 2012년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2015년, 2016년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2018년까지 증가한 후 다시 감소 추세 (M자형 추이)
 - 저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2년 이후 교역액 하락
 - 2018년 이후,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장기화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 19 등이 교역액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
 - 2020년 인도네시아 교역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9.6%)하였으나, 2021년 전년도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V자 반등 성공

인도네시아 교역 동향(2010~2021)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수출 동향

- 팜오일, 석탄, 천연가스 등 원자재 위주의 수출 구조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21년 인도네시아 수출액은 전년 대비 41.8% 증가(\$1,633억 → \$3,315억)

-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538억), 미국(\$258억), 일본(\$179억) 등이고, 한국은 7위(\$90억) 규모 기록

인도네시아 수출 품목 동향(2018~2021)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8	2019	2020	2021
전체 수출액	180,215	167,003	163,308	231,522
1 팜오일 (1511)	16,528	14,633	17,365	26,665
2 석탄 (2701)	20,634	18,866	14,548	26,538
3 석유가스 (2711)	10,649	8,849	5,452	7,483
4 합금철 (7202)	1,368	2,604	4,745	7,125
5 스테인리스강 (7219)	2,298	3,259	2,993	6,586
6 구리광 (2603)	4,187	1,280	2,412	5,386
7 공업용 알코올 (3823)	2,980	2,549	2,917	5,299
8 갈탄 (2702)	3,329	2,767	1,925	4,975
9 천연고무 (4001)	3,951	3,527	3,012	4,017
10 스테인리스강 (7218)	822	411	1,631	3,727

자료: Global Trade Atlas(Hs code 4자리/2021년 내림차순)

□ 수입 동향

- 원자재를 주로 수출하고 중간재와 소비재를 주로 수입하는 구조
- 2021년 인도네시아 수입은 코로나19 상황 호조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2020년 대비 38.3% 증가(\$1,416억 → \$1,962억)
- 2021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562억), 싱가포르(\$155억), 일본(\$146억), 등이며 한국은 6위(\$94억) 규모 기록

인도네시아 수입 품목 동향(2018~2021)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18	2019	2020	2021
전체 수입액		187,917	170,388	141,622	196,190
1	석유조제품 (2710)	17,069	13,085	7,968	13,971
2	석유·역청유 (2709)	9,161	5,705	3,392	7,047
3	전기통신기 (8517)	5,795	5,615	5,963	6,281
4	석유·가스 (2711)	3,032	2,507	2,581	4,091
5	밀·잡곡 (1001)	2,560	2,799	2,616	3,548
6	혈액·면역물품 (3002)	276	216	341	3,400
7	차량용 부속품 (8708)	3,765	3,382	1,842	3,128
8	자동차부속 (8471)	2,346	2,290	2,023	3,056
9	전자직접회로 (8542)	1,926	1,586	1,790	2,871
10	금 (7018)	2,129	1,768	1,902	2,682

자료: Global Trade Atlas(Hs code 4자리/2021년 내림차순)

□ 외국인 투자 현황

- 코로나19에도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인도네시아 FDI 동향(2017~2022.1)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Q
FDI(억 달러)	322.4	293.1	282.1	286.7	310.9	0.04
증감률 (%)	11.3	-9.1	-3.8	1.6	8.4	-
프로젝트(건수)	26,257	21,972	30,354	56,726	27,271	8,061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국가별로는 2021년 기준 싱가포르(\$9,390백만)가 매년 FDI 최대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홍콩(\$4,609백만), 중국(\$3,160백만) 등이 뒤를 잇고 있음

- 특히, 한국은 현대자동차, LG전자, KCC 등 대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에 힘입어 2021년 1,640백만 달러로 전체 7위

인도네시아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순위 추이(2019~2022.1Q)

단위: 백만 달러

순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1Q	
1	싱가포르	6,593.8	싱가포르	9,779.1	싱가포르	9,390.1	싱가포르	1,687.5
2	중국	4,744.5	중국	4,842.4	홍콩	4,609.3	중국	687.9
3	일본	4,310.9	홍콩	3,535.9	중국	3,160.4	홍콩	539.2
4	홍콩	2,891.0	일본	2,588.0	미국	2,537.2	일본	424.6
5	네덜란드	2,596.8	한국	1,841.9	일본	2,263.2	모리셔스	148.1
6	말레이시아	1,357.5	네덜란드	1,422.4	네덜란드	1,761.6	말레이시아	132.3
7	한국	1,070.2	말레이시아	1,045.3	한국	1,640.2	영국	110.8
8	미국	989.3	미국	749.7	말레이시아	1,364.3	네덜란드	73.9
9	네덜란드	744.6	대만	454.3	스위스	599.8	미국	65.8
10	호주	348.3	호주	348.6	태국	450.3	네덜란드	5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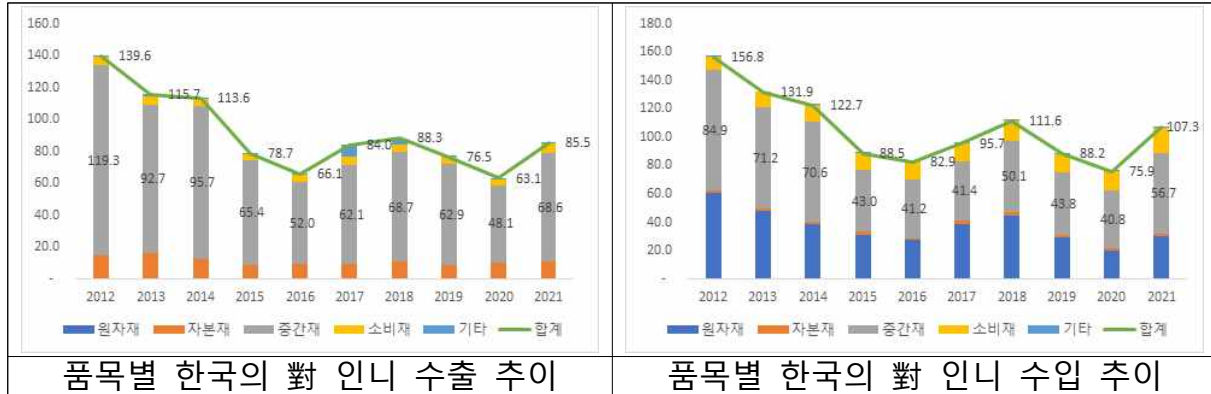
자료: 인도네시아 투자부(BKPM)

□ 한-인니 교역 현황

- 한국과 인도네시아 교역도 인도네시아 전체 교역 동향과 같이 M자형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구조적 문제로 2011년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양국간 교역액 감소 원인은 ①가스, 원유, 석탄의 수입선 다변화, ②석유제품 수출시장 전환, ③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광물).수입 규제정책 시행, ④중국과의 경쟁 심화, ⑤COVID 19 영향 등으로 주요 교역 품목의 교역액 감소에 기인
 -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에 따라 2021년 한인니 교역액은 전년 대비 38.6% 증가

한-인도네시아 교역 추이(2012~2021)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제품, 기계, 철강판 등의 對 인도네시아 수출 지속 감소
 - (석유제품) 2011년 \$65억 → 2020년 \$3억으로 대폭 축소됨, 한국 석유화학회사들의 수출선 다변화와 인도네시아 정부의 바이오디젤 의무 사용에 따른 수입 감소로 추정. 2021년에는 유가 상승으로 48.6% 상승한 \$7억 기록
 - (기계류) 2011년 \$7억 → 2021년 \$1억으로 축소,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
 - * 인니 기계 시장 점유율은 2011년 일본, 중국, 태국, 미국, 한국 순이었으나, 중국산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시장점유율 하락
 - (기타) 인도네시아 정부의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한 국산부품사용의무(TKDN) 확대, 기술표준인증(SNI) 필수분야 확대, 수입쿼터제 시행 등 수입규제 강화

-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천연가스, 원유, 석탄, 광물 등 대폭 감소
 - (천연가스) 천연가스 수입원 다변화(미국 셰일가스 등)에 따른 수입 감소
 - (원유) 인도네시아 내수 성장에 따른 원유 소비 증가, 자원탐사의 한계로 생산량 부족, 원유 도입선 다변화(이란 등)으로 인니산 원유 수입 감소
 - (석탄) 한국의 탈석탄 에너지 정책 시행, 한국의 석탄 수입원 다양화(호주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하였으나 석탄 가격 상승으로 작년 대비 30.1% 증가
 - (기타) 2021년 영상기기 수입액은 전년 대비 401% 상승한 \$5억 달러로, 인니 LG전자 공장에서 생산한 TV 등 영상기기의 수입으로 추측

□ 한-인니 투자 현황

- 한국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진출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까지 자원개발 또는 섬유, 신발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주축을 이룸
- 1990년대 이후에는 현지 수요를 타깃으로 한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2000년 대 이후에는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의 진출로 투자 규모가 대형화됐고, 2010년 이후 서비스업종 진출이 두드러짐
- 1990년대 이후에는 현지 수요를 타깃으로 한 철강, 전자, 건설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으며, 2000년 대 이후에는 포스코,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의 진출로 투자 규모가 대형화됐고, 2010년 이후 서비스업종 진출이 두드러짐
- 2010년 후반부터 미-중 무역 갈등 지속, 인니 내수 시장 수요 증가, 생산 거점의 효율화를 위한 중국 등의 제 3국 소재 공장의 이전 트렌드 등으로 우리 기업의 대 인도네시아 투자 업종의 다각화 추세
-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핵심 육성 분야인 전기차 분야 한국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자동차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을 위한 합작투자
- 2022년 1월 롯데케미칼-현대엔지니어링은 39억 달러 규모의 인니 대규모 석화단지 '라인 프로젝트' 시공사로 선정

한-인도네시아 간 투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누 계
대 인도네시아	신고액	754	845	1,544	1,166	2,415	6,724
	신고건수	353	410	431	353	369	1,916
대 한국	신고액	1,051	10	451	197	9	1,718
	신고건수	11	5	7	3	7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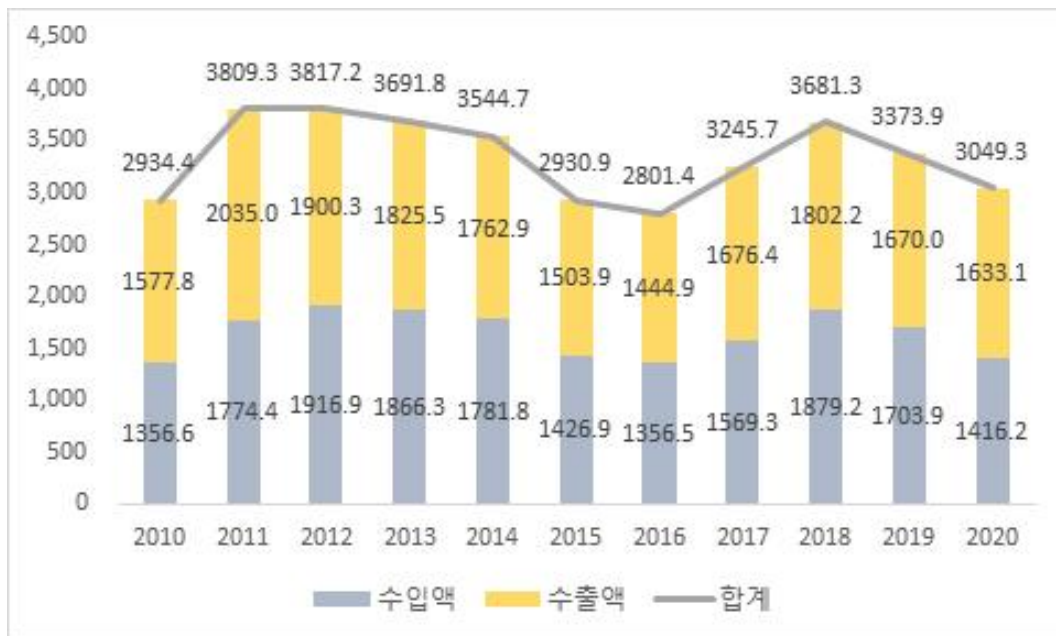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대외 교역 현황

- 지난 10년간 인도네시아 대외 교역을 살펴보면, 2012년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후 2015년, 2016년 감소하다가 이후 다시 2018년까지 증가한 후 다시 감소 추세 (M자형 추이)
 - 저유가,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2년 이후 교역액 하락
 - 2018년 이후, 주요 교역국인 미국과 중국간 무역분쟁 장기화와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 코로나19 등이 교역액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됨

인도네시아 교역 동향(2010~2020)

단위: 억 달러



자료: 인도네시아 통계청

- 2020년 인도네시아 교역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9.6%),
 - 2020년 인도네시아의 주요 교역국은 중국(\$714억), 미국(\$272억), 일본(\$243억) 등이며 한국은 7위(\$134억)을 기록
- 2021년 교역은 전년도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 증가 추세(31.6%, 1~7월 누계 기준)
 - 특히 교역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24.8%)과 미국(8.5%)과의 교역 활성화가 전체 교역 상승세를 이끌고 있음

IV. 체류 시 유의사항

□ 입국 시 절차 및 유의사항

- 인도네시아 현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동하고 있어 입국 전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관련 컨설팅 회사를 통한 확인 추천
 - 대사관 홈페이지 : <https://overseas.mofa.go.kr/id-ko/index.do>
-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입국 가능

<출장에 활용되는 주요 비자 종류>

- 1) 단수상용비자·방문비자(B211A / B211B)
 - 비자구분: B211A(사회활동, 친지방문 등), B211B(비즈니스 미팅과 같은 사업 관련)
 - 체류기간: 60일(비자 연장 가능)
 - 비자 신청 및 발급: 인도네시아 비자 발급 시스템(E-Visa)
 - * 현지 스폰서(현지회사)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진행 불가
- 2) 제한적 체류비자(Visa Tinggal Terbatas, VITAS)
 - (1) 취업비자(C312)
 - 목적 및 체류활동: 근로 및 취업 등
 - 체류기간: 1년(1년 씩 연장)
 - 체류허가 연장: 1년씩 연장이 가능하고 최대 체류 기간은 6년임
 - 제한조건: 원칙상 일반 근로자는 현지인을 고용해야 하고 전문직만 외국인 취업 허가(IMTA)를 발급하고 있어 최소한 4년제 대학 졸업장 필요
 - (2) 투자가 비자(C313/1년, C314/2년)
 - 목적 및 체류활동: 인도네시아에 투자 목적으로 방문
 - 체류 기간: 1년
 - 비자 신청 및 발급: 인도네시아 투자부 추천서 필요

□ 공항, 호텔 등 외부로 이동 시 유의 사항

- 공항, 호텔에서 개별 이동시 신변안전과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개인 승용차 혹은 Silver Bird(모범 택시)나 Blue Bird(일반 택시) 이용 요망
- 호텔 출입구에는 거의 항상 택시가 대기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호텔로 돌아올 때에는 주로 건물 입구 내외부에 있는 CAR CALL 데스크 혹은 업소에 부탁

* Silver Bird 요금 : 기본 Rp 50,000(4천 원) / Blue Bird 요금 : 기본 Rp 20,000(1천 6백 원)

□ 호텔 체류 시 생수를 식수로 사용

- 수도물은 식수로 사용 불가하므로 음료수는 호텔 측에서 각 룸으로 무료 제공되는 생수 활용 추천(양치물도 가급적 생수 사용)
- 호텔 프론트 데스크에 생수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호텔 외부 출입 기회가 있을 경우 인근 마트에서 생수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음

□ 룸서비스 및 포터 팁

- 룸서비스 혹은 포터의 경우 20,000 루피아, 미화로는 약 1.5달러 정도이며, 현지인은 팁으로 바로 통용이 가능한 루피아화 선호
- 식당은 음식 요금에 봉사료(Service Charge)가 포함, 별도의 팁 불필요

□ 시차

- 인도네시아는 3개의 표준시 사용
 - 우리나라와의 시차 : 수라바야(-2시간) 자카르타 (-2시간), 발리 (-1시간)

□ 환전

- 환전은 은행, 공항, 호텔, 주요 쇼핑몰 내 은행, 환전소 등에서 가능하며, 보통 큰 쇼핑몰 안에 환전소가 위치하고 있음

- 훼손된 화폐나 미화 소액권은 적용환율이 불리해 신권이나 훼손되지 않는 미화 100달러 환전을 추천
- 인도네시아 소매점은 달러를 받지 않는 곳이 많아 현지화 준비 필요

□ 복장

- 보통 와이셔츠에 넥타이(자켓을 입지 않아도 무방)를 활용
 - 호텔 및 상담장 내에서는 냉방으로 인해 추울 수가 있어 긴팔 착용 권장
 - 비즈니스 미팅 시 인도네시아 전통 의상인 바틱(Batic) 셔츠가 널리 활용 되고 있음
- 자유시간에는 짧은 팔 혹은 긴팔 티셔츠 착용 무난

□ 위생 주의

- 인도네시아는 장티푸스, Dengue열, 말라리아,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등 감염자 사망 발생이 많은 국가로 모기, 틈켓 등 벌레에 물리지 않게 조심해야 하며, 위생용품 상시 활용 추천
- 특히, 위생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길거리 음식 등을 섭취하지 않기를 권장

□ 신변 안전 주의

- 인도네시아는 테러 발생 국가이며 매년 1~2건의 대형 테러 발생함. 최근 테러 경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는 바 신변 안전에 최대 유의하시고 야간 활동을 자제하는 것을 추천
 - 자카르타 리츠칼튼, 메리어트 호텔 폭탄 테러('09.7), 자카르타 스타벅스 자폭 테러('16.1), 수라바야 연쇄 폭탄 테러('18.5)
- 2021년 상반기에만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의 테러 2건 발생
 - 마사카르 성당 자폭테러('21.3), 자카르타 경찰청 내 총격전 발생('21.3)

V.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정보

□ 인도네시아 시장특성

- 가격이 우선시 되는 시장
 -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7천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시장이지만, 2020년 1인당 국민소득이 US\$ 3,922로 추정되는 중위소득 국가임
 - 인도네시아는 최근 15년동안 빈곤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해 현재는 10% 미만이지만 아직까지도 빈곤에서 탈피했으나 경제적 안정성이 부족한 인구 수는 1억 1,500만 명으로 추산
- 화교 자본이 상권을 장악
 - 인도네시아의 화교 인구는 정부 통계상 전체 인구의 3% 정도(약 600만 명)이나 실제로는 약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
 - 화교들은 1967년 수하르토 집권 이후 공직진출에 제한을 받아 대부분 경제계에서 활동하였으며, 현재 인도네시아 100대 그룹사에도 화교그룹이 다수
 - 중국계의 구세대(Old Generation)는 부동산, 금융, 제조업, 대규모 농업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으나, 신세대(Young Generation)는 어플리케이션, 핀테크를 포함한 ICT 분야 및 4차 산업 관련 신사업 아이템을 찾고 있음
- 자바섬·자카르타 중심의 상권
 - 인도네시아를 이루고 있는 다섯 개의 큰 섬 중 자바섬에 인구의 절반인 1억 2천만명 거주(제 1, 2의 도시인 자카르타, 수라바야도 자바섬에 위치)
 - 소비시장도 자바섬이 전체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제거래는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 특히, 수도 자카르타의 1인당 명목 GDP는 19,029 달러, PPP(구매력평가)는 55,184 달러 수준으로 인도네시아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가격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마케팅 활동도 같이 필요
-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요 확대로 2020년 전자상거래 시장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440억 달러 규모, 2025년 까지 지속해서 두자릿수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세 기록 전망(e-Conomy SEA 2020)
 - 다만, 한국 기업들이 주로 이용하는 Shopee 플랫폼의 해외 직구 플랫폼은 현지 정부 규제로 막히고 있는 추세라 지속적인 동향 파악 필요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관행

○ 인간관계 중시

- 인도네시아 바이어들은 인간적인 신뢰관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음에 따라 사업 파트너와의 친분 관계 구축은 계약 성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르바란이 최대의 구매 시즌

-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은 라마단 금식기간이 끝나는 ‘르바란’임, 우리나라의 구정처럼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며 일가친척을 방문하는데, 기업들도 르바란에 선물을 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어 가장 큰 소비 활동 발생
- 최근 기업들은 신정, 크리스마스, 그리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12.12 할인과 같이 상시적으로 다양한 할인행사를 벌이고 있음

○ 유통구조

- 과거와 달리 운송·통신수단이 발달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간 유통단계를 줄이는 것이 일반화 되어 유통구조도 단순해지는 추세임
-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어 온라인 유통시장에 진출해 직접 판매하는 업자들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꾸준한 증가세
- 백화점 또는 대형 슈퍼마켓은 상품을 직접 수입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전문 수입상이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자 또는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됨

※ 유통마진의 경우 에이전트, 등록 무역상 등을 통해 수입할 경우 이들에게 2~10%정도의 수입대행 수수료를 지불하고, 10~30%의 마진을 붙여 소매상 또는 중간 규모의 유통업체에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 소매상 또는 중간규모의 유통업체는 여기에 다시 약 30%의 마진을 가산. 따라서 수입가격(CIF)에 수입세, 부가세, 특소세, 통관수수료, 운송비, 기타 비용, 마진 등을 합하면 최종 소비자 가격은 수입가격의 200~250% 수준

○ 대금 결제 방식

- 결제방법은 국제관례상 인정되는 한 수입자와 수출자와의 계약에 의해 신용장, D/P, D/A, 선금지급 등 다양한 방법이 이용
- 결제통화로 미달러 및 유로화, 일본 엔화 등 20여 개국의 통화가 지정. 큰 거래에는 L/C를 주로 사용하지만 소액의 거래에는 T/T가 많이 사용됨
- T/T 이용 시 대금의 일부는 계약할 때, 잔금은 선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거래 시 무역 사기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함

□ 인도네시아 문화, 이것만 주의하자

○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

-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만 이슬람교가 대다수이다 보니 이슬람문화가 지배적
- 이슬람교도들에게 돼지고기와 술은 금기 식품이며 도박도 금지
- 이슬람교도들은 왼손을 좌욕 등 청결하지 못한 일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악수를 하거나 물건을 건네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
- 머리는 영혼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어린아이라도 머리를 만지는 것을 기피
- 이슬람교도들은 하루에 5회씩 기도를 하므로,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기도실 (Mushollah)이 있고 기도시간은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음

○ 부족에 대한 언급 자제

- 인도네시아는 1,300여개 부족으로 이루어졌음
- 비즈니스 상담 시 민족에 대해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기 쉬우니, 부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음

<인도네시아의 주요 부족>

- 자바족은 인도네시아 인구의 40%를 구성하는 최대 부족이다. 70%가 자바섬에 거주하며 자바어를 사용한다. 자바족은 예의가 바르고 언제나 얼굴에 미소를 띠고 친절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바어는 지위, 나이, 친밀한 정도에 따라 쓰는 어휘가 달라진다. 자바인들은 절대로 싫다거나 못한다는 말을 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
- 순다족은 주로 자바섬 서부에 거주하고, 자바족 다음으로 큰 부족이다. 순다어를 사용하고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는다. 순다족도 예의가 바르고 성실하다고 알려져 있고, 성격이 온순하고 활발한 편
- 바딕족은 가장 엄격한 부계 중심의 대가족 제도를 유지하는 부족으로 대부분 아체와 북부 수마트라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인과 가장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짐

VI. 주요 기관 및 긴급 연락처

□ KOTRA 수라바야 무역관 연락처

- 주 소 : VOZA Office 20th floor, Jl. HR. Mohammad No. 31, Surabaya 60189
- 전 화 : 62-31-9921-0211
- 홈페이지 : www.kotra.or.kr/KBC/surabaya

□ 기타 주요 기관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주 인니 한국대사관	62-21-2967-2555 62-811-852-446 (당직전화) 62-21-2967-2580 (영사과)	http://idn.mofa.go.kr
인도네시아 한인회	62-21-521-2515	http://www.innekorean.or.id/hanin/
대한항공	62-21-521-2180	www.koreanair.co.kr
아시아나	62-21-5098-6112 62-21-5031-1030	https://flyasiana.com

□ 응급 연락처

- 경찰: 112, 앰블런스 : 119, 화재신고 : 113
- 한인 변호사: 62-21-527-2422(이승민 변호사), 62-21-2941-1042(이소왕 변호사)
- 병원: National Hospital (+62-31-297-5777)

VII. 주요 쇼핑몰 정보(방문 전 확인 필수)

- ※ 코로나 19로 폐쇄 및 밀집 공간 내 식사 지양 요망,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쇼핑몰과 식당의 운영 시간과 수용 인원이 변경되고 있어 방문전에 사전 확인 필수
-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식사를 위해 백신접종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음
- ※ 인도네시아 식당에서 계산서상에 세금과 봉사료(Tax 밑에 Service로
명시됨)이 미리 포함돼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별도 팁은 불요

□ 주요 쇼핑몰

- Pakuwon Mall
 - 주소 : Jl. Mayjen Yono Suwoyo No.2, Babatan, Kec. Wiyung, Surabaya
 - 연락처 : 62-31-7393-888
 - 웹사이트 : www.pakuwonmall.com

- Tunjungan Plaza Surabaya
 - 주소 : Jl. Jenderal Basuki Rachmat No.8-12
 - 연락처 : 62-31-531-1088
 - 웹사이트 : www.tunjunganplaza.com

- Grand City
 - 주소 : Jl. Kusuma Bangsa Surabaya
 - 연락처 : 62-31-545-9000
 - 웹사이트 : www.grandcitysurabaya.com

- Ciputra World Mall
 - 주소 : Jl. Mayjend Sungkono No. 89, Surabaya
 - 연락처 : 62-31-5120-0088
 - 웹사이트 : www.ciputraworldsurabaya.com

- Galaxy Mall
 - 주소 : Jl. Dr. Ir. H. Soekarno No. 178
 - 연락처 : 62-31-593-7100
 - 웹사이트 : www.galaxymallsurabaya.com

VIII. 수라바야 볼거리

장 소	개 요
	알 악바르 사원(Al-Akbar Mosque) *코로나로 외부인 입장 금지 - 동부 자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슬람 사원 - 역사적 의미와 독특한 건축미가 특징
	수라바야 독립기념탑(Tugu Pahlawan) -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군인들을 위해 세워진 탑 - 시내 중심에 위치
	Korea's Park(한국-인도네시아 우정의 탑) - 2차 세계대전 당시 전몰 한국인 장병 추모를 목적으로 주인니 동부 자바 한인회가 중심이 되어 조성한 탑으로 1,200s/m의 면적에 공원 형태 - 정부에서 부지를 제공하였으며 양국간 협력의 상징임.
	수라바야 동상(Surabaya's icon statue) - 수라바야 이름의 유래를 설명하는 상징적인 동상 - 수라바야(Surabaya) 지명은 상어(shark)를 뜻하는 sura와 악어(crocodile)를 의미하는 baya에서 유래하였음.
	삼포에르나 담배박물관(Surabaya's icon statue) *코로나로 폐쇄 - 인도네시아 주요 담배인 삼포에르나 창립자의 자서전적인 박물관 (삼포에르나는 2005년 필립모리스가 인수) - 1862년 지어진 네덜란드풍 건물에 크레텍(정향) 담배공장, 박물관 소재
	수라마두 대교(Suramandu Bridge) - 자바 섬(Java)과 마두라 섬(Madura)을 잇는 5.4km 길이의 사장교(斜張橋, cable-stayed bridge)로 2007년 준공 - 양 지역간 경제통합 연결고리 의미가 큼.
	라핀도 화산 분출(Lapindo Mud Volcanoes) *주변 지역 공사로 폐쇄 - 2006년 5월 가스전 개발 과정서 폭발해 중심지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 현재는 차량이 우회하여 통과하고 있는 지역으로 화산분출 잔해를 구경할 수 있음. 수라바야에서 1시간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

IX. 간단한 인도네시아어 모음집

<간단한 인도네시아어 배워보기>

☞ 인사말

- Selamat pagi. (슬라맛 빠기) 아침인사
- Selamat siang. (슬라맛 씨양) 오전에서 오후 넘어갈 때쯤 인사
- Selamat sore. (슬라맛 소레) 오후 인사
- Selamat malam. (슬라맛 말람) 저녁인사
- Terima kasih. (뜨리마 까쉬) 감사합니다.
- Sampai bertemu lagi. (삼빠이 버르뜨무 라기) 다음에 또 만나요

☞ 자기 소개

- Apa kabar? (아빠 까바르) 안녕하세요?
- Nama saya Doni. (나마 사야 도니) 제 이름은 도니입니다.
- Saya orang Korea. (사야 오랑 꼬레아)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 Senang bertemu dengan Anda. (스낭 버르뜨무 등안 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 쇼핑

- Harganya berapa? (하르가냐 브라빠?) 얼마예요?
- Mahal! (마할) 비싸네요. / Murah (무라) 싸네요.
- Bisa Kurang? (비사 꾸랑?) 할인해줄 수 있나요?
- Uang Kembali (우앙 끄발리) 거스름돈

☞ 교통수단

- Pesawat terbang (쁘사왓 뜨르방) 비행기, Taksi (딱시) 택시, Bandara (반다라) 공항, Sepeda Motor (스빠다 모뜨르) 오토바이, Kereta api (끄레따 아삐) 기차

☞ 숫자

1 Satu (사뚜)	2 Dua (두아)	3 Tiga (띠가)
4 Empat (음뻏)	5 Lima (리마)	6 Enam (으남)
7 Tuju (뚜주)	8 Delapan (들라뻘)	9 Sembilan (슴빌란)
10 Sepuluh (스뿔루)	100 Seratus (스라뚜스)	1,000 Seribu (스리부)

.끝.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